



2022. 12. 31. Vol. 27



STELLA

Tel. (032)864-0055 Fax. (032)864-0051

나에게 힘을 주시는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조 영희스콜라스티카 시설장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월 1일자로 이동되어 이곳 스텔라의 집으로 오게 된 조 영희스콜라스티카 수녀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복지관에서 일하다가 새 소임을 받아 인천 송학산 자락에 위치한 스텔라의 집 공동체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생활인들의 삶을 지켜보고 지지하며 좌충우돌 많이 부족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과 사건을 접하며 함께 울기도, 웃기도 했지만 자라는 아이들이 주는 기쁨은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환희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아이 키우며 공부하는 엄마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노력의 결실을 이루는 것 같아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텔라의 집 식구들은 성모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의 집이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기관 관계자분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고, 특히 한 번도 뵙지 못한 후원자님들! 그리고 도움을 청하면 잔걸음으로 달려와 주시는 자원봉사자님들의 많은 사랑과 나눔이 함께했기에 스텔라의집이 지금처럼 하나의 작은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미혼모자 엄마들의 든든한 울타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염치없지만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 주실 거라고 믿으며, 다시 한번 아낌없는 후원과 사랑의 실천, 나눔의 봉사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는 스텔라의 집 생활인 가족들이 더 열심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리4,13)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스텔라의 집 공동체와 후원자님들! 자원봉사자님들!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 04 상담사 글
- 06 생활인 글
- 08 스텔라의 이모저모
- 16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 18 후원자 · 봉사자 명단



CoverStory

스텔라의집 아기 천사들

발행인 조영희
 발행처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스텔라의 집
 www.stellahouse.kr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학길26번길 40
 (문학동 339-11) 유일아트빌
 전 화 032)864-0054~5
 기 획 스텔라의집
 편 집 (주)도서출판 디자이너클럽
 032)613-6352



모든 들꽃은 꽃을 피운다



어느 작가의 책 제목으로 젊은 청춘에 만난 이 글귀가 세월을 보내며 더욱 마음에 와닿는 말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들꽃이 꽃을 피우듯이 의미 없고 하잘것없는 인생은 없다. 인생길의 방향과 목표는 개인적으로 다르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조건은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런 기다림을 차분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꽃을 피우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처음 겪는 코로나로 상담이 잠시 멈추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 매뉴얼이 생기고 개별상담이나 소그룹 상담이 가능한 시기가 되었을 때 스텔라의 집 자립관에서 스텔라의 집 퇴소자인 엄마들과 자녀들을 만났다. 아동 상담을 위해 엄마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 처음에 마주한 엄마들은 자녀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목적하에 프로그램에 참여는 하되,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를 표현했었다. 추후에는 ‘솔직히 큰 기대도 안 했어요’ 하는 말에 빵하고 함께 웃음이 터지기도 하였다.

그렇게 세 명의 아동 상담을 시작으로 매주 만나게 되었다. 상담은 라포(Rapport) 형성이 중요한데 아동들은 라포형성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다. 자신의 상담시간을 기다리며 앞서 상담하는 내담자가 끝났는지 문 여닫는 소리로 확인하고 자리를 정리할 틈도 없이 문을 두드리거나 문 앞에 서 있기도 했다. 만나면 할 이야기도 너무 많았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처럼 나 또한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움은 덤으로 사랑받기 너무 충분한 천사들이었다. 아동 상담 후 엄마에게 자녀에 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엄마들의 개별상담까지 이어졌다.

한마디로 엄마들. 만만찮은 인물(人物)들이었다. 인물을 보통은 사람이라고 칭한다. 그 외에 사전의 뜻을 찾아보면 생김새, 됃됨이, 내세울 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인물로 묘사한 이유는 사전적 의미만큼 모두 자기만의 주관이 뚜렷하고 다양한 색채를 보였다. 너무 억척스럽고 아무나 대적해서 싸워도 질 거 같지 않은 강인함, 고집 하나는 최고봉, 무표정의 달인, 상냥하지만 뱅뱅 제자리를 맴도는 의구심의 여왕, 밝은 웃음 뒤 눈물이 바다를 이루는 소녀 등 엄마 상담 또한 몰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자신을 남에게 꺼내놓기는 참 어렵다. 나 또한 그랬었다. 충분히 이해한다. 상담하면서 다양한 내담자들을 만난 경험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상담에 임하는 자세다. 상담회기가 많아도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조금씩 서서히 자기 벽을 깨고 나와 자신을 바로 보고 인정할 때 변화를 시도하고 성장을 할 수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믿음, 그리고 솔직함 그게 가장 어렵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만만찮은 인물들은 상담 초기부터 기본자세를 장착하고 상담에 임했다. 그래서 진솔한 자신을 보여주니 상담시간이 따듯했다. 울기도 많이 울고, 웃기도 많이 웃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또 봄을 기다리는 많은 시간에 아동집단상담, 엄마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형태를 바꿔가며 만났다.

아이들은 또래 집단이 있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친구와 비교를 한다. 궁금한 아빠 이야기, 나를 사랑했는지, 축복받으며 태어났는지 궁금했는데 엄마가 화낼 거 같아서 안 물어봤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자녀들을 이해하고 엄마들은 지혜롭게 자녀와 공감하며 소통하려 노력했다. 빗장을 풀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엄마도 있었고, 아직은 때가 이른 거 같다며 자녀와 진지하게 이야기 나눌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도 있었다. 그리고 엄마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에 엄마를 위로해서 눈물샘을 자극하는 엄마의 엄마가 되어주는 자녀도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나약한 자신을 스스로 인지했을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더욱 의식하게 된다. 긴장된 상태로 소중한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연스럽지 않은 그 모습을 자녀는 그대로 보고 배운다. 그러다 자녀의 성장을 통해 비로소 본인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엄마를 변하게 하는 것 같다.

그 동안 자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알아가고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진솔한 모습으로 상담시간에 맞춰 참석하는 열정을 보여 준 엄마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바람이 불면 바람결 따라 흔들리며 꽃을 피울 때까지 각자의 방법으로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엄마들을 응원한다.

남경진 상담사

하늘에서 엄마를 찾아 내려와 준 천사, 우주

글 한아름(우주맘)

2021년 1월 19일 20시 5분, 38시간의 진통,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우주는 눈을 부릅! 뜨고 엄마를 쳐다봤어. 그때는 우주가 문제없이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머리에 가득했던 지라 “이제껏 보았던 아기 중에 제일 예뻐요”라고 말하며 우주를 안아보라는 간호사의 이야기에든 괜찮다고, 우주의 사진만 찍고 말았었는데 우주가 태어나자마자 꼭 안아줄걸... 돌아오지 않을 그 순간이 아직도 후회로 남아. 그렇게 우주는 황달로 인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태어나서 10일이 지난 후에야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우주를 데리러 갔던 인하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안, 다시 만난 우주는 얼마나 작고 소중하고 이쁘던지, 그때 그 순간의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나. 평생 잊지 못할 순간 일 거야.

너를 처음 안고 바들바들 떨던 엄마가 기억나니? 떨어트리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 그렇게 자모원으로 들어가 우주와 함께 정신없는 30일을 보내고 스텔라의 집으로 와 새로운 시작을 했지. 많이 불안했지만 우주와 엄마를 보호해주는 보금자리가 생겨서 안도감이 많이 들었어.

우주가 신생아였을 때 심장 초음파, 뇌 초음파 검사도 받고 먹는 족족 토를 해서 우주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관리를 잘 해주지 못한 죄책감에 우주가 엄마 때문에 아픈 건 아닐까 싶어서 초반엔 엄마 마음이 많이 불안했어. 그땐 엄마가 감정 처리 능력이 미숙해서 어린 우주에게 엄마의 불안한 감정을 전가 시키기도 하고 너무 서툴게 우주를 키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이곳에 생후 1개월 때 들어와서 지금 24개월이 되기까지 탈 없이 예쁘게 잘 커줘서 기특하고 요즘은 우주가 엄마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알아들어. 우주 맘마를 엄마가 먹겠다고 장난치면 “안! 대!~” 하면서 대꾸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오늘은 무슨 꿈 꿔?” 물으면 “빠방”, “택찌” 라고 대답하며 웃어주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 보면 언제 이만큼 컸는지... 신기하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엄마는 어릴 적에 부모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자랐어. 가족이 엄마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지. 그래서 우주를 낳기 전엔 가족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 우주가 엄마의

어릴 적 그런 모습들을 닮을까 봐 늘 조마조마해. 요즘 우주를 보면 엄마의 어릴 적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리고 미안해. 눈치 보는 아이로 자라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던 엄마인데, 엄마 마음대로 우주를 주무르려 하고 자주 화내는 것 같아 미안해. 그래서, 매일 밤 잠든 우주를 보며 반성하고 엄마의 부정적인 감정을 우주에게 티 내지 않겠다고 다짐해.

이모들이 우주는 하늘에서 엄마를 위해 내려준 천사라고 말해.

평생을 하루살이처럼 살던 엄마에게 찾아와서 엄마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준 우주, 덕분에 엄마는 경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입학해 맨 앞자리에 앉아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성적도 잘 나오는 모습에 교수님들께 인정도 받았어. 간혹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우주를 생각하니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

우주는 엄마도 뭐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줬어. 엄마 인생에서 가장 잘 한 선택은 우주를 낳은 거야.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혼자일 때는 집에만 있던 엄마였는데, 이제는 ‘우주와 오늘은 뭘 하면 좋을까?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해볼까?’ 하며 행복한 고민을 하게 돼. 우주와 함께 비행기 타고 제주도 여행도 가보고, 주말마다 키즈 카페 나들이, 동물 체험 등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우주와 함께 즐기고 싶고 매 순간이 기대돼.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우주보다 엄마가 더 재미있어하는 것 같아. 히!

다양한 경험들로 우주가 성장하는 만큼 엄마도 함께 성장하고 있고 우주와 함께하는 매 순간 감사해.

우주는 엄마 사랑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 만약 나중에 가족이 생기더라도 엄마의 1순위는 우주라는 걸 잊지 않게 엄마가 항상 노력할게.

엄마는 우주와 함께 다니면 명품으로 치장한 듯한 느낌이야. 그냥 자랑스러워.

‘애가 내 아들이에요!’

엄마는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지금껏 엄마의 임신 기간, 우주의 탄생, 우주가 자라는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곁에서 지켜 주셨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지켜준 엄마의 소중한 천사 한 우주, 엄마는 우리 우주의 인생에 행복과 기쁨, 사랑이 늘 가득하길 바라.

항상 즐겁게 살자, 사랑해 아들!



생일을 축하해요

일년 중 가장 특별한 오늘,
스텔라 가족들의 생일을 많이많이
축하해주세요!



○○ 핑크 공주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랑많은 아이로 자라주렴 ~♥



잘생긴 ○○ 왕자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행복이 가득한 아이로 자라주렴 ~♥



멋진 ○○ 왕자님의 첫돌을 축하합니다!
늘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렴 ~♥



백만불 미소 ○○ 왕자님의 첫돌을 축하
합니다! 늘 행복한 아이로 자라주렴 ~♥



김○○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배○○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 똑똑 공주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주렴 ~♥



씩씩한 ○○ 왕자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자라주렴 ~♥



양○○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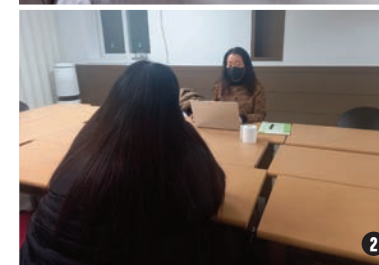
가족 관계개선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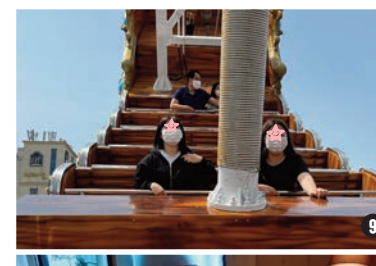
- ① 설명절
- ② 5월 가정의달 나들이
- ③~⑥ 유아 신체발달놀이
- ⑦ 추석명절 외식
- ⑧ 종무식
- ⑨~⑩ 제주 가족캠프



상담사업

- ① 집단상담
- ② 개별심리훈련
- ③ 건강한 가족구성원이란?
- ④ 집단상담나눔





문화 여가활동

- ❶ 가족나들이
- ❷ 강화 나들이
- ❸ 러브이즈인더에어 전시관
- ❹ 영화 관람
- ❺ 도자기 만들기
- ❻ 7 뮤지컬 관람
- ❽ 루지체험
- ❾ 월미도 놀이체험
- ❿ 문화활동 후
- ⓫ 남촌동성당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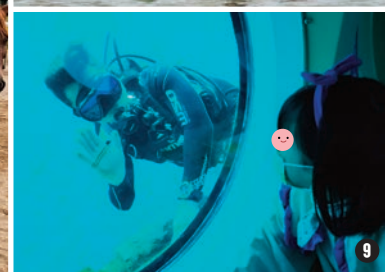
자원봉사 활동

- ❶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 ❷ 3 현대모비스(주)
- 인천부품사업소



사후관리 사업

- ① 미술 가족상담
- ② 퇴소자 간담회
- ③④ 설명절 행사
- ⑤ 퇴소자 중무식
- ⑥~⑨ 퇴소자 가족캠프



부모교육

- ① 경제교육
- ② 성교육
- ③ 심폐소생술교육
- ④ 인권교육
- ⑤ 약물오남용교육
- ⑥ 양육코칭교육
- ⑦ 폭력학대예방교육
- ⑧ 재난안전교육
- ⑨ 부모교육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지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밝은 앞날을 준비하고 희망하는
엄마와 아기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들이 꿈을 잃지않고 힘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펴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방법 우리은행 : 1005-701-096476
예금주 : (재)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국민은행 : 237201-04-136742
예금주 : 인천교구스텔라의집
농협 : 351-0056-3198-13 / 예금주 : 스텔라의집

물품후원 생필품, 아기용품, 옷 등
혜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전화번호 032-864-0055 / Fax 864-0051
오시는길 지 하 철 : 1호선 주안역 버스 65번, 65-1번,
신동아3차 하차 등대교회 방향
시내버스 : 구월동에서 111-2번
문학초등학교 앞 하차, 등대교회 방향

Thank you!

스텔라의집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정성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1월~12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간호부 후원금 후원



건강이봉사단 물품후원



관교여중세요각시봉사단 손수건 후원



길병원 생필품 후원



김승주님 산타선물 후원



대한여한의사회 물품후원



인천상공회의소 후원금 후원



인천여의사회 후원금 후원



인천지방법원 생필품후원



푸른두레생협 산타과자 후원



현대모비스(주) 인천부품사업소
상품권 후원



희망을나누는사람들 물품후원



LH인천지역본부 상품권 후원

나눔은 또 하나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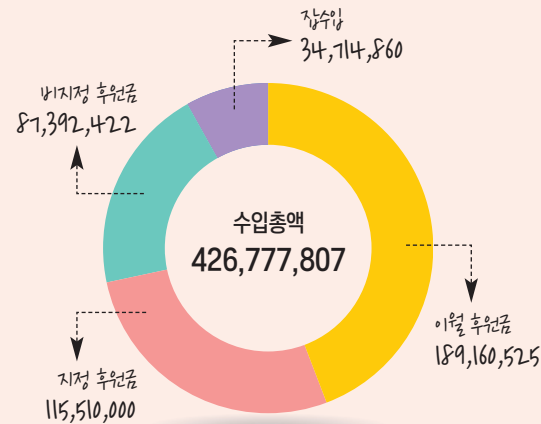
2022. 1 ~ 2022. 12

그동안 보내주신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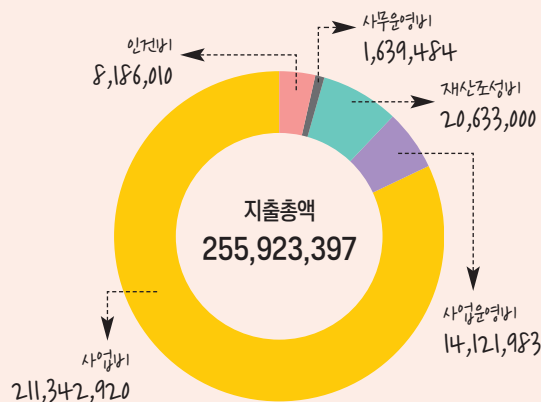
■ 수입

후원금의 종류	금액
이월후원금	189,160,525
지정후원금	115,510,000
비지정후원금	87,392,422
잡수입	34,714,860
계	426,777,807



■ 지출

사용내역	금액
인건비	8,186,010
사무운영비	1,639,484
재산조성비	20,633,000
사업운영비	14,121,983
사업비	211,342,920
계	255,923,397



※ 지정후원금은 주거자립비 지원 및 장학금 용도임.

후원해주신 분들

● 개인

강승모 강정숙 강풍자 강환선 고영희 공영희 공이재 구하나 김경민 김경아 김금재 김남숙 김다슬 신부님 김대겸 김미숙 김보연 김세호 김양남 김열중 김영신 김영희 김옥선 김우수 김정민 김종례 김진숙 김충현 김형두 김형순 김혜진 김항규 김효숙 김희창(예로니모) 남동국 도승현 레오 루피나 류호석 명품공인중개사사무소(김만우) 박다남 박미영 박영숙 박영신 박영욱 박우자 박정숙 박종구 박종례 박준형 박지민 박창목 박창진 박현진 박혜인 박효임 박희숙 박희욱 방민정 방성수 배진모 변형우 서경원 서은례 서재순 서현주 성송자 성수경 성악 성은정 성장환 세희 세은 손영진 송경찬 신원재 신일섭 신부님 신평채 신혜선 심상철 심현석 안상순 안소형 양두영 양한나 오미정 원종훈 위미화 유만월 유시원 유옥분 유옥순 유은경 유진형 베드로 유춘희 윤순식 윤태은 윤향미 윤현중 음경희 이건복 이남섭 이명옥 이부영 이성윤 이소연 이순희 이영애 이영희 이용권 신부님 이장욱 이재용 이재원 이정민 이주영 이지현 이창환 이춘자 이현아 이호섭 이흥재 익명(일시후) 임강연 임경옥 임분자 임인자 임혜영(베로니카) 임흥기 장건우 장경자 장비귀 장영미 장호진 전병서 전진탁 정기영 정라파엘라 정상기 정유진 정현숙 정효숙 조선희 조송현 조은희 조점순 조화자 차영진 나종찬 최승미(동그라미회) 최애진 최연희 최영환김해리 최유선 최은미 최정희 최지우 최현철 한기원 한명란 한지성 한창성 현애정 홍준표 홍춘금 황상미 황애현하야친타

● 단체

(사)마리안느와 마가렛 (재)인천교구 (주)상도 (주)원알로이 (주)진명프리텍 (주)코벤 아이러브피플 (주)한살매 (학)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DB손보 관교여중학생회 남촌동성당 남촌동성당봉사회 동서테크 사회복지법인대덕복지재단 삼양개발(전난회) 석플란트 성북동수도원 성북동프란치스코수도원 송의동빈첸시오회 송의동성당 연수성당 은하수학교 이진숙소아과 인천교구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성모병원간호부 인천여의사협회 재단법인하나금융나눔재단 재단법인인천교구 제물포성당 주안1동성당 중3동 빈첸시오회 자연자이사벨 청라치과의원 청수성당빈첸시오 태양노브공업(주) 한국순교성인성당 한서기공(김부길) 해오름어린이집

물품 후원해주신 분들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주)브레인아이시티 (주)쁘리마주 (주)아반사
(주)원알로이 관교여중학부모봉사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부지사 길병원
김승주 김현혜 남구자원봉사센터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여한의사회
동서테크 동촌동성당 롯데케미칼 미추홀구청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사랑발 새봄(김경자) 서울트리니티치과 송의동성당 연수성당
유지영 이옥경 인천교구사회복지회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시청
인천지방법원 제이앤스포츠(정병훈) 푸른두레생협 학산나눔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현대모비스(주)



| 미션 |

스텔라, 꿈을 재창출하는 싱글맘들의 홈!

| 핵심가치 |

- 사람이 희망이다.
- 다르니까 조화롭다.
- 나는 내가 키운다.

스텔라의 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26번길 40 (문학동 339-11)

Tel. (032)864-0055 Fax. (032)864-0051

www.stellahouse.kr

stellahouse